

아버지의 원가족 분화 경험, 부부갈등, 양육행동이 자녀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의 모형 검증 -자녀의 성차를 중심으로

정문자 (연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아동·가족학과 교수)

전연진* (연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전문연구원)

본 연구는 서울과 부산에 살고 있는 아버지의 원가족 분화 경험과 현재 핵가족에서의 부부갈등 및 자녀 양육행동이 자녀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의 경로와 이 경로가 자녀의 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를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알아보았다.

연구 대상은 서울시와 부산시에 소재한 총 여섯 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4학년생 368명(남아 197명, 여아 171명)과 5학년생 469명(남아 224명, 여아 245명)의 총 837명과 그들의 아버지 837명이었다. 본 연구에서 부모의 원가족 분화 경험은 전연진과 정문자(2003)의 원가족 분화 경험 척도를, 부부갈등은 Porter와 O'Leary(1980)의 O'Leary-Porter Scale을 어주경과 정문자(1999)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. 아버지의 양육행동은 박영애(1995)의 양육행동 척도를 본 연구자들이 요인분석을 통해 문항을 축약하여 사용하였다. 아동의 내면화 및 외현화 행동문제는 오경자, 이해련, 홍강의와 하은혜(1997)의 한국판 청소년 자기행동 평가척도(Korean Youth Self-Report; K-YSR)로 측정하였다. 자료의 분석은 SPSS 10.0 프로그램으로 각 측정 변인들의 기술적 통계치를 산출하였고, 각 변인들간의 이론적 모형 검증은 AMOS 4.0 프로그램을 이용한 구조방정식 모형을 사용하였다.

본 연구 결과, 아버지의 원가족 분화 경험, 부부갈등, 아버지-자녀간 양육행동이 아동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의 경로는 자녀의 성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. 먼저 아버지-아들집단에서는 아버지의 원가족 분화 경험이 부부갈등과 거부·제재 및 허용·방임적인 부정적 양육행동을 통해 아들의 내면화 및 외현화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쳤다. 즉 아버지의 원가족 분화 수준이 낮을수록 아버지는 부부갈등이 심하다고 지각하였고, 이러할수록 아버지는 아들에게 거부·제재적이고 허용·방임적인 부정적 양육행동을 많이 하였다. 그리고 아버지가 부정적 양육행동을 많이 할수록 아들은 내면화 및 외현화 행동문제를 많이 보였다. 다음으로 아버지-딸집단에서는 두가지 경로가 나타났다. 첫째, 아버지의 원가족 분화 경험이 거부·제재 및 허용·방임적인 부정적 양육행동을 통해 딸의 내면화 및 외현화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쳤다. 즉 아버지의 원가족 분화 수준이 낮을수록 딸에게 거부·제재 및 허용·방임적인 부정적 양육행동을 많이 하였고, 이러할수록 딸은 내면화 및 외현화 행동문제를 많이 보였다. 둘째, 아버지의 원가족 분화 경험은 부부갈등과 긍정적 양육행동을 통해 딸의 내면화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쳤다. 즉 아버지의 원가족 분화 수준이 낮을수록 아버지는 부부갈등 정도가 심하다고 지각했으며, 이러할수록 아버지는 딸에게 긍정적 양육행동을 적게 하였다. 그리고 아버지가 긍정적 양육행동을 적게 할수록 딸은 내면화 행동문제를 많이 보였다.